

월요광장



노경수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의회의 도시 계획 조례 변경안이,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광주시의 안과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13일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보류되었다.

최근에 한 시민단체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서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등이 떨어지며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막강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비밀주의를 진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언론도 '깜깜이' '비밀투성이' 위원회라고 거들고 있다. 정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가?

현행 광주시 도시 계획 조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요약하여 신속히 게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불신의 근거는 지난 2년간 부결은 한 건도 없었으며, 인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면 나아질까

40%는 재자문, 재심의를 거쳐 시간이 지나면 통과된다는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부패 연계가 의심스럽고, 또는 광주시의 요구를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는 '거수기'로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윤리 규정을 두어 위원이 입안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척되거나 본인 스스로 회피하도록 되어 있다. 또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민간인이라도 공무원에 준하도록 엄하게 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시 계획의 입안 과정부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그리고 공청회까지 열어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여도 통상 3인 이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도시 계획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결정 과정을 감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약 20년 전부터 시민단체 회원 한 명을 도시 계획 위원으로 위촉해 왔으며, 직전 위원회에서는 세 명까지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한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올해 초에 구성된 새 위원회에서 시민단체 몫이 한 명으로 줄어서 그 불편한 분위기도 이해가 간다.

권한이 막강하다고 알려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위

를 도시 계획 관련 판례로 보면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서, 행정 기관이 도시 계획을 결정할 때 위원회의 집합적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라는 것일 뿐이다. 즉, 행정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대로(기속하여) 도시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은 지자체장의 최종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행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권위를 높여 주고 앞장세우고, 행정은 한발 물러나 있으면서 의도한 바대로 도시 계획을 결정하고 집행하여 왔다. 입안권자는 시장·군수, 결정권자는 도시사인 경우와 달리, 광주시와 같은 광역시는 입안권과 결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광주시장이 입안한 도시 계획안을 광주시장이 스스로 부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덧붙여서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행정임의대로 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부결 0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공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행정에서는 위원들의 소극적 의견 개진, 부동산 투기 유발 등으로 공정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보완책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범위 확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한 경우 대책 마련, 위원의 윤리성·전문성 교육 필수화, 시민단체 위원을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선정하는 것 등과 맞물려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고' 종합적·전문적·기술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마지막 짚은 화분이었다. 몇 번을 돌아보며 망설이더니 여남은 화분 중 하나를 꺼내고 집을 나섰다. 갈 길이 멀어 식사도 생각한 채, 트러는 서둘러 광주를 떠나 상행선 고속도로로 향했다. 몇 해 산 집을, 평생 살던 곳을 갑자기 떠나면서 그는 꼭 회포되어 돌아오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집을 팔고 동백 화분을 안고 떠나면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거짓말이다. 그런데도 그가 꼭 돌아오기를, 그리고 몇 십 년은 화분에 봄마다 피는 꽃을 보고, 향기를 맡으며 행복하길 바란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 생활했다. 사글세가 10개월 기준이었으니 거의 1년 단위로 이사를 한 셈이다. 그리고 근대와 졸업, 취업 결혼까지 이사는 매해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없는 징검다리 같은 것이었다.

이사는 집을 옮기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 간혹 몰인정한 주인장과 헤어진다는 후련함과 밤늦게 또는 새벽

여운 있는 이사

부터 싸우는 이웃들에서 벗어나는 해방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문득에 하루하루 발자국이 축적되듯 정이라는 것도 수북하게 쌓이기 마련이다.

어떤 집은 고향이 해남이라는 아줌마가 매일 나에게 된장국을 건네며 호의를 보이기도 했다. 내 또래 여학생을 둔 아저씨는 나를 불러 바둑을 두자고 조르는 집도 있었고, 어떤 집은 외향성을 탄 어떤 당구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형제가 많은 어떤 집에서는 애당초 나도 그 일원으로 같이 공을 차고 함께 속삭이기도 했다. 어떤 집에서는 그해 5월, 그의 큰아들과 나를 데려가 주남마을 앞 다달실 마을 골방으로 피신시켜준 덕분에, 되레 비행기 소리, 군화 발소리에 가슴을 덜덜덜 떨며 잠을 설치기도 했다. 어찌 이뿐이라.

켜켜이 쌓인 날들은 실상 사람들의 인연이 쌓인 날들이고 삶은 그렇게 정을 쌓는 일이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 술한 날들과 수많은 사람과 인연이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룬 시간이었다.

나도 그 많은 이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매번 같은 약속을 했다. 아니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 꼭 돌아오겠다고 말이다.

호출받고 오양원에 출근한 아내가 늦게 울먹이며 돌아온다. 며칠 전에 한 어르신 이 위독해서 요양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면 좋겠다고 자녀들에게 전화했는데 모두 무덤덤하더라던 말이 떠올랐다. 한 사람의 비보를 접

하고 비로소 그분도 이승에서 저승으로 마지막 이사를 했음을 실감했다. 그들도 그렇게 꼭 찾아오겠다고, 두 손 꼭 잡고, 거듭거듭 약속했을 것이다.

만남은 어렵다. 그러나 이별은 더 어렵다. 나처럼 자녀들도 그에게 있는 눈물이 없었다. 영혼 없는 이별, 자녀들은 편리하고 쉬운 여운이 없는 이별을 택한 셈이다.

지금껏 이사를 할 때마다 짐 옮기는 데만 비했다. 방을 구하고 집을 옮기는 일을 이사의 전부로 알았다. 하지만 이사는 모를지키 나를 옮기고 이웃을 옮기고 세상을 옮기는 일이다. 집과 집은 그냥 허물이고 껍데기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난 그 사람들의 사랑을 소중한 보물들을 옮겨 실은 적이 없었다. 난 매번 이사를 하면서도, 진정 한 번도 여운 있는 이사를 하지 못한 셈이다.

이제 딱 한 번 남았다. 이 세상의 허물을 벗고 피안으로 옮기는 한 번, 수많은 육신의 이사를 통해, 진짜 마지막은 영혼이나마 가볍도록 이리 여러 번 연습을 내게 시켰는지 모른다. 그러니 이번은 멋지게 우아하게, 이 세상의 혼 혼한 아름다움-된장국, 바둑, 당구, 속삭, 그해 5월에 담긴-을 담아 저세상에 전해 주고 싶다.

내가 떠난 곳에도 아름다운 관계들이 따뜻하게 쌓이기 바란다. 난 지금 마지막 관계 이삿짐 목록-눈물, 사랑, 애정-을 정리하고 있다. 언젠가 그리워 뒤돌아볼 수 있도록, 화분 하나 꼭 품에 안고서...

기고



김도일
전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축제는 매력적이다. 축제는 공동체성, 일탈성, 경제성, 정체성 등 다양한 가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축제란 시민이 축제의 주체가 되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며, 관광 수입의 발생은 축제의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제를 완성하는 주체는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축제 기획은 축제의 미션은 무엇인가, 왜 그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축제를 통해 참여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즐기고 향유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충장 축제가 축제성과 관광 콘텐츠로서의 가치 연계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로 변화를 시도한다고 한다. 2004년 충장로 상권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심형 축제로 시작하여 광주 충장로 축제, 추억의 7080 충장 축제, 추억의 충장 축제, 추억의 광주 충장 월드페스티벌에 이르기까지 '추억'을 주제로 성장해 왔다.

올해는 '추억'에 '빛'을 광주만의 가치와 '광주 사람이 품은 빛'을 더해 광주다운 축제로 거듭나겠다고 한

5·18을 품을 충장 축제에 거는 기대

다. 특히 주목할 만한 행사는 스페인 발렌시아 라스 파야스(Lass Fallas) 축제의 '마스클레타'를 벤치마킹해 수천 발의 폭죽을 쏘아 올린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의 아픈 기억'을 위로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충장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80년 5월의 광주 5·18 항쟁을 추억 속에 탑재하여 광주 정신의 미래화를 위한 축제로 만들어간다는 점일 것 같다.

5·18의 주요 행사는 기념식과 전야제 행사가 있다. 5월 행사는 '추모'와 '기억'을 기반으로 제의·의례적 성격을 지니며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형성하여 왔다. 특히 전야제 행사는 과거 5공 정권의 감시 속에 산발적 형태로 진행된 추모 행사가 1980년대 중반부터 점차 행사의 형식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고, 이후 문화와 결합해 1990년 5·18 전야제가 금남로에서 처음 개최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전야제 행사는 의례·투쟁·문화 예술로서 80년 5월의 기억을 재생산하고 광주만의 독특한 5월 문화 형성과 정체성 확립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5월 행사의 정치성과 저항성을 회복·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5월 전야제 행사의 의례화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며 전국적인 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는 5·18 전야제 행사가 광주 5월을 대표하는 문화 행사로, 전야제의 상징성을 보다 확대하고 발전시켜 넓은 범위의 시민 참여를 통해 5월 항쟁의 의미와 기억이 유지·확장되도록 하자는 바람이라고 본다.

광주 5·18은 국가 폭력과 죽음이러는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지만 6월 민주 항쟁의 기반이 되었으며 군부 독재의 종식과 함께 정치 발전을 이끈 동력으로 민주주의와 생명, 인권과 정의와 평화를 지킨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그러나 세상은 급속한 정치 격변과 경제 성장의 시기를 겪으며 경제적인 면면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배경이 전혀 다른 여러 세대가 한 사회에 공존하고, 연령별 세대 간에 전통적 문화에 대한 문화적 가치나 소비 양식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광주 5월에 대한 이해가치도 다양하다. 이에 축제는 공동체 의식 형성을 통해 가치를 통합하는 훌륭한 매개체이며 기제로서 의미가 높다.

세계 유명 축제의 여러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축제와 도시의 정체성을 연계하며 가치(value)를 입히는 것이다. 시대를 대변하는 가치를 내포한 축제는 많은 사람들을 축제의 마니아로 만들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특정 가치 및 정신이 축제로 승화되는 경우가 많다. 광주 5·18과 정신은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5·18 전야제와 충장 축제는 시의성과 형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지향하는 가치의 본질은 같으며 다양성과 함께 발전시킬 광주의 자산이다. 축제 장소 금남로는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이 피를 흘렸던 상징의 공간이다. 금남로는 지난 시간 속 서사가 이야기하듯 우리의 삶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역사가 배어 있는 것이다. 금남로가 추억의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시대의 가치가 축적되는 장소이기를 희망하며 충장 축제에 기대를 가져 본다.

社說

벼랑 끝 내몰리는 교사들, 교권 보호 절실하다

엇그제 서울에서 임용 2년 차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권'이라는 말은 사치일 뿐 '교사 인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돈 지 오래다. 최근에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지만,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사들이 지도할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 자녀 입장만 생각하는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과 시달림을 받아도 교사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방법은 전무하다.

이러한 현실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만 206건의 교권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교사가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은 경우도 1300건에 이르렀다. '학부모 갑질'로 인한 교권 침해까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와 갈등을 빚는 교사'로

일소문이 날까 두려워 대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관리 점수가 떨어질까 우려해 사안을 덮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음에도 교육 당국의 대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학교마다 학부모나 학생의 고질적인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들이 한두 명씩 있는데도 학교장조차 소극적인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 일쑤다. 시도 교육감들은 위능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장받고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정치권도 부랴부랴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 인권도 소중하다. 교사가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에 교단에 서기를 두려워한다면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교육 당국은 이처럼 암울한 현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교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미래 차 도시 동력으로

광주시가 정부 공모에서 미래 차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추진했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무산됐다.

정부는 엇그제 '소부장 산업 특화단지' 다섯 곳을 신규 지정했다. 광주(미래 차, 자율주행차 부품), 충북 오송(바이오 원부소재), 경기 안성(반도체 장비), 대구(미래 차, 전기차 모터), 부산(전력 반도체) 등이다. '광주 미래 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오는 2028년까지 6000억 원을 투입해 빛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산단, 미래 차 국가산단을 연계한 220만여 평 규모의 미래 차 삼각벨트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자율 주행 등 미래 차 분야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핵심 부품의 자립화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인력 양성,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완성차 공장을 보유한 광주시는 지난 3월 100만 평 규

모의 국가산단 유치에 이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끌어 내면서 미래 차 산업을 선도하고 국내 대표 모빌리티(mobility)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전통의 자동차 도시 울산과 경기도 화성시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이뤄낸 결실이라는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상 협력 사업으로 총력을 기울였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실패로 돌아갔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는 경기 용인·평택과 경북 구미, 전북 새만금 등 일곱 곳이 지정됐다. '인공 지능(AI)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지역민의 기대가 높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광주·전남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도는 독자적으로라도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고, 정부는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리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든, 저 자신을 위해서든,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한다"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제 시작은 나스랑 에미넴(에미넴)이었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되게 불안하고 모순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계속 있지 않잖나..." (278쪽)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발간된 오피셜 북 '비온드 더 스토리'(BEYOND THE STORY)가 최근 뉴욕 타임스가 발표한 베스 트셀러 1위에 올랐다. 한국 도시로는 첫 NYT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으로, 음악의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에 비견된다. 책에는 연습생 시절부터 세계적인 그룹으로 우뚝 서기까지의 여정과 아티스트로서의 철학 등이 망라돼 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명칭에는 다분히 철학적인 의미가 내재돼 있다. 초창기 이들은 '세상의 편견과 억압을 막아 주는 소년들'이라는 뜻을 담은 '볼리프루프 보이즈'(Bulletproof Boys·방탄이 되는 소년들)

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17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리뉴얼해 그룹 명에 '비온드 더 스펀'(Beyond The Scene)이라는 뜻을 가미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너머의 것'이라는 의미가 함의돼 있는데 RM은 책에서 "인정 투쟁의 역사" 인정받고 싶다. 증명받고 싶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인정 투쟁은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목적보다 자신의 명예를 확인하려는'는 정신적인 성격의 싸움을 뜻한다. BTS에게 인정 투쟁은 연대와 포용의 의미로 수렴된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벌이는 사생결단식의 방탄 국회와 동물 국회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싸움이다.

BTS의 지난 10년은 세계를 향한 K팝의 도전기이자 K컬처의 역사였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에 짓눌린 10대들을 위해 '방패'가 되기를 자처했고 눈에 보이는 너머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싸움이 아닌 대를 모색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비온드 더 스토리', 즉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라는 '신화'를 쓰기 위해 다시 출발선에 섰다. 그들의 또 다른 10년을 응원한다. /박성천 문화부장·편집국장 skypark@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주간 程厚植 |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 문 화 사 업 국 220-0541 |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 (FAX 222-8005) (FAX 222-0195) | |
| 정 치 부 220-0652 | 예 항 부 220-0692 | 기 획 관 리 국 227-9600 | |
| 경 제 부 220-0663 | 사 진 부 220-0693 | 업 무 국 220-0551 |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21 | (FAX 222-0195) (FAX 222-0195) | |
| 전 남 본 부 220-0680 | | 디 자 인 실 220-0536 | |
| | | 세 울 지 사 02-773-9331 | |
| | | (FAX 02-773-9335) | |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